

기독교학교의 교육목표와 대학입시

강영택(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강사)

이종철(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연구원)

논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독교학교에서 대학입시가 학교교육에 주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세 개의 기독교 고등학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각 학교에서 교육목표의 추구하고 입시준비교육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는 이들 학교들이 신앙과 실력을 함께 중시한다는 점이고, 신앙보다 실력을 우선시하거나 신앙을 실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이 지배적인 분위기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학교들이 갖는 한계점들 역시 많았다. 학교에서 추구하는 신앙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개인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이 있고, 실력을 시험점수나 대학입시에서의 성공 등으로 지나치게 축소시켜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학과수업 외의 활동에서는 신앙교육에 열심인 반면 학과수업에서는 일반학교의 수업과 별반 차이가 없이 입시준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론에서 기독교학교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와 실천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기독교학교, 대학입시, 기독교교육, 교육목표, 질적 사례연구

* 2007년 10월27일 접수; 2007년 11월28일 수정; 2007년 12월15일 게재 확정

I. 서론
II. 문헌연구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VI. 결론: 요약 및 제언

I. 서론

최근 들어 기독교학교¹⁾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위기 의식으로 많은 기독교대안학교가 급격하게 생겨나고 있으며²⁾,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문제로 기독교사학 정체성의 재확립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박상진, 2007; 신기영, 2007). 이러한 시점에서 기독교학교들이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무엇이며, 다른 학교들과의 교육적 차별성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학교의 교육적 특징을 탐구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대학입시이다. 대학입시는 한국의 초중등 학교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학교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대안학교든 할 것 없이 학교가 한국에 있는 한 대학입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대학입시 정책의 변화가 학교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양승실, 2003).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학교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교육과 대학입시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학입시라는 요소를 배제한 기독교학교에 대한 연구는 학교교육을 온전히 밝

1) 이 논문에서 기독교학교라는 용어는 미션 사립학교와 기독교대안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07)를 참조하라.

혀내는 연구가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학교들이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대학입시라는 요소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독교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교육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학교의 학생, 교사, 행정가들이 학교의 실제 교육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학교교육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독교학교의 실질적인 교육목표 형성에 대학입시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대학입시라는 요소와 기독교학교의 교육활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질문들을 갖는다.

- 1) 기독교학교가 표방하는 교육목표와 실제 학교교육(교육과정, 교실수업, 학교행정 등)에서 발견되는 실질적인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 2) 기독교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입시 준비 교육은 상호간에 어떤 영향 관계에 있는가?

이 연구를 위해 세 개의 기독교학교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두 개의 미션 사립학교들과 한 개의 기독교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다. 각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과의 심층면담과 수업, 채플, 학생 자치활동 등의 관찰이 주요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기독교학교들이 그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여 그 학교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대학입시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II. 문헌 연구

대학입시가 한국의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정범모(1993)는 해방 이후 한국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진보주의나 본질주의와 같은 교육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라 입시준비 교육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입시준비 교육이 학교 교육을 전면적으로 파탄에 빠트리려 현재 학교에는 입시준비 교육 철학만 남아 있을 뿐 교육본연의 이념은 사라지고 있으며, 전인교육 역시 말로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영호(2002) 역시 입시준비 교육으로 인해 우리나라 학교에서 교육문화의 심각한 왜곡 현상이 나타났음을 비판한다. 그는 고등학교 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도 대학입시에서 성공하여 고학력과 좋은 학벌을 획득하는 것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입시위주의 교육에 적극 동참하여 점수 따기 위주 학습에 매달려 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입시 준비교육이 학교에서 실제 전인교육에 어느 정도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한 실증적 조사에서 ‘입시 위주의 지식중심 교육’이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과 방법의 빈약’(9.4%), ‘교직원 신념 부족’(4.9%), ‘교육과정이 전인교육면에서 부적당하게 편성’(4.4%)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 (79.6%)로 전인교육에 장애가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987). 강영혜 외(2005)는 전국 11개 고등학교에 대한 참여관찰에서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고교평준화 제도로 인한 동질적인 학생구성 여부나 학교의 위치,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아니라 대학입시를 확인했다. 즉, 대부분 학교에서는 입시경쟁의 부담으로 학생들의 고차적인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 창의적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식보다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입시위주 교육의 실상에 대한 연구는 강무섭

외(1990; 1992a; 1992b)의 교육개발원 3개년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연구에 따르면 학교교육의 목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수업 내용 및 방법, 그리고 학교문화 등이 입시위주 교육의 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편향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93% 이상의 대다수 교사와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 일반교양교육 등의 전인교육이 학교교육의 바람직한 목표라고 생각하면서도 학교에서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교육목표가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는 진학준비 교육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강무섭 외 1990).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비입시 과목의 축소’나 ‘교과진도의 속성화’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업 내용은 거의 교과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업 방식에서도 ‘교과서 내용의 명확한 설명’ (5단계 척도에서 4.21)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반면 ‘학습부진 학생의 보충지도’ (2.29)라든지 ‘소집단 편성에 의한 협동학습 기회 제공’ (2.19) 등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분명히 입시위주 교육의 결과라 할 것이다. 학교의 운영 방침이나 학생의 가장 큰 고민 등과 같은 학교의 문화면에서도 학업과 입시는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독교학교 교육과 입시준비 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미약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논의는 주로 기독교학교가 일반학교들과 본질적 차별성이 없음을 비판하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김선요(2004)는 기독교학교들이 외형상 기독교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입시교육”에 치중하여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지적한다. 양금희(2000) 역시 기독교학교들이 입시 위주 학교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독교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와 종교과목 수업으로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일반학교와 똑같이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박봉목(2004) 또한 기독교학교에서 대학입시 준비로 인한 성과 위주의 주입식 학교교육으로 기독교적 인간교육이 점차 희석되어 간다고 말한다. 정

희영과 정희정(2005)은 한국의 기독교학교의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의 대학입시 준비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기독교학교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대학과의 연계성 부족, 기독교학교에 대한 인식 부족, 기독교교사의 준비부족, 교육과정 연구의 미흡과 더불어 성공지향적 대학입시 제도를 들고 있다.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수(2004)는 기독교학교들이 인본주의적 교육과정에 성경과목을 하나 더 하고, 채플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하는 것으로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나라의 구현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인 기독교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야 하는 개인 회복의 사명과 성경적 가치관을 문화 속에 담아들이는 문화 창달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손원영(2007)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학교들이 직면한 갈등적 상황을 진단하고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영성 교육적 종교교육'을 제시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영성 교육적 모형은 '비판적 성찰을 통한 종교적 깨달음'과 인간, 자연, 신의 연결과 인간에서 영혼과 육체의 연결을 중시하는 '통전성의 영성 지향'과 '낮선 타자에 대한 '환대의 영성 지향'을 갖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학교에서 이러한 영성 교육적 종교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교가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상진(2007)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재확립을 위해 평준화 교육제도의 개선과 선지원 방식의 강화 등과 같은 교육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국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가 기독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독교교육현장을 제정하고, 교회와 학교의 협의회를 구성하며, 기독교학교설립 운동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상진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제도개선과 교회의 후원과 같은 외적 요소를 강조한 데 비해 신기영

(2007)은 기독교학교의 내적 개선을 중요시 하고 있다. 즉, 기독교학교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교육적 개념들, 예를 들어 수월성, 성공, 경쟁, 성적, 명문학교 등에 대한 기독교적 재정의가 이루어져서 학교 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념들이 기독교학교의 궁극적 교육목표인 하나님나라의 구현과 관계될 때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존 볼트, 2006). 비슷한 맥락에서 강영택(2007)은 기독교학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통해 인간의 하나님, 이웃, 자연, 자기 자신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갈 때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방법에 대한 타당성

본 연구는 세 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기독교학교의 학생, 교사, 행정가들이 대학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의 운영이 대학입시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적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 질적 연구는 단순화와 한계설정을 최소화하고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한다(조용환, 1999). 질적 연구방법은 구체적인 현장의 맥락을 중시하며, 연구대상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귀납적인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로는 파악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짚어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한편 사례연구는 사건들의 관계에 대해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탐구하는 목적으로 종종 사용된다 (Yin, 2003). 사례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종종 사례의 특수성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일반화를 위한 모색도 시도한다(Stake, 2000; Yin, 2003).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일반화의 개념은 양적 연구에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화(generalization)라는 용어보다는 전이성(transferability)이나 적합성(fittingness)이란 용어를 더 선호한다 (Lincoln & Guba, 1985).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세 학교의 사례들을 정확하게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대하는 것은 세 학교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독교학교에서 교육과 입시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2. 연구 사례 학교

본 연구를 위해 세 개의 기독교 고등학교를 선택하였다. 대학입시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미션 사립학교와 기독교대안학교를 나눈 뒤 미션 사립학교 2개교와 기독교대안학교 1개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미션 사립학교 가운데는 학교선택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평준화지역에서 한 학교, 비평준화지역에서 한 학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학교들을 나열한 뒤, 그 중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사례학교로 선정된 A고등학교는 평준화지역에 있는 미션 사립학교이다. 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이 학교는 기독교학교로서의 역사가 길어서 대표적인 기독교학교로 손꼽힌다. 학교의 규모는 큰 편이며, 학생들은 선지원 후 추첨 형식으로 학교에 들어오며, 입학생의 그리스도인 비율은 B, C 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학교의 교훈은 “기독교적 인격”이며, 이를 위해 교목실에서 신앙과 관련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학교로 선정된 B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에 있는 기독교 미션 학교로, 학교규모는 큰 편이다.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대표적인 기독교학

교로 손꼽히며, 교회에 의해 설립되고 후원되고 있다.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학교라는 인식을 얻어 학생선발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편이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다. 입학생의 그리스도인 비율은 A학교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마지막 사례학교로 선정된 C고등학교는 지방에 기숙사를 두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로,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형태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상태이다. 독특한 학교만의 자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학교의 규모는 교사 19명, 학생 160명으로 작은 학교이다.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다수(약 90%)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들의 학업능력은 과거에 비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모든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생들의 자치생활을 통해 삶 속에서 신앙을 배운다.

〈표1〉 사례 학교 요약

	A고등학교	B고등학교	C고등학교
설립유형	평준화지역 사립학교	비평준화 지역 사립학교	대안학교형 특성화학교
기숙사	없음	부분	전원
학급수	39	48	8
학생수	1229	1894	160
학생선발	선지원 후 추첨	선발시험	선발시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1.5	39.5	20.0
남녀	남자	공학(분반)	공학(합반)
교원 수	82	105	19
교원1인당 학생 수	15.0	18.0	8.4
교훈	기독교적 인격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진리, 사랑, 순종

3.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대상 학교 후보를 결정한 뒤,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연구 협조를 허락받았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질적 사례 연구의 경우와 같이,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삼았고, 문서 등 기타자료 분석을 통해 미비한 자료를 보완하는 식으로 수행되었다. 각 학교에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 15명 정도의 심층 면담과,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수업 및 각종 학교 모임의 참여관찰, 그리고 학교교육계획서를 비롯한 각종 문헌자료들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07년 6월 중순부터 한 달여 사이에 각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족한 자료는 방학이 끝난 후 9월 초에 다시 추가 수집되었다. 학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연구에 협조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업공개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학부모 인터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별로 수집된 자료의 양에 차이가 생겼다. 연구진은 익명성 보장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학교명과 교사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표2〉 자료 수집의 양

		A고등학교	B고등학교	C고등학교
인터뷰	교사 인터뷰	5	5	6
	학생 인터뷰	6	5	5
	학부모 인터뷰	0	2	0
	교육행정가 인터뷰	2	3	1
참관	수업	2	5	1
	수업 외 주요활동	0	6	1

가장 주된 자료 수집 방식으로는 심층면담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기 전에 구조화된 질문들을 준비하였다. 면담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로 약속하고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준비된 연구 질문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중간 중간 필요한 질문들이 있으면 덧붙이는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사되었다.

심층면담은 주로 ‘학교의 교육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목표가 실제로 학교 운영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대학입시와 학교교육목표가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지’, ‘대학입시가 학교의 실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대학입시를 기독교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층면담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어른은 50분, 학생은 30분 정도로 이루어졌다.

참여관찰 또한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참여관찰의 장면은 수업과 수업 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업 외 활동으로는 주로 학교의 주요행사(입학설명회), 신앙집회(예배, 경건회 등), 학생자치 모임 등을 참관하였다. 수업시간에는 교실 제일 뒷자리에서 교사의 수업내용과 학생들의 활동을 최대한 자세히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그 속에서 ‘학교의 교육목표’, ‘목표와 입시와의 관계’ 등에 관련된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표3〉 심층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영역	주요 질문 내용
학교의 교육목표	교육목표 진술, 표방하는 목표와 실제 목표의 일치 여부 교육목표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반영 정도 교육목표의 개별 수업활동에 대한 반영 정도 교육목표의 학교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반영 정도
학교의 목표와 입시와의 관계	대학입시 준비와 학교교육목표 추구의 우선순위 대학입시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영향 정도 대학입시의 개별 수업활동에 대한 영향 정도 대학입시의 학교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작용 정도 입시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대학입시 준비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이해

학교교육계획서를 비롯한 학교의 각종 문헌자료들도 요청하여 수집하였다. 학교교육계획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만, 그 안에는 주요 학교현황, 학교의 교육목표 및 방침, 교육실천을 위한 세부계획, 교육계획수립의 기저에 있는 철학 등이 정리되어 있어 학교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자료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학교의 브로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체 제작한 주요 보조교과서, 기도회의 기도제목 등의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이루어졌다. 녹음했던 자료들을 풀어 쓴 뒤, 모아진 자료들을 세밀하게 읽어 나가면서 자료로부터 최초에 가졌던 연구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갔다. 반복되는 용어나 개념도 표시해 두었다. 자료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주제를 찾아서 적고 자료를 개념 범주에 따라서 묶었다. 이에 덧붙여 조용환(1999)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적절한 비유를 찾아서 표현하기’, ‘증거들 간의 논리적 관계 설정하기’, ‘개념적, 이론적 일관성 확보하기’ 등을 고려하여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이렇게 해석한 내용들을 9월 초순부터 보고서로 기술하였다.

4. 연구의 한계

첫 번째 연구의 한계는 진실된 자료 수집에 필요한 충분한 래포(rapport)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사나 행정가들이 드러내 보이는 학교의 모습은 피상적이고 가장된 모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학교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보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학교에 머무르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연구자들의 여건과 대상 학교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였다. 참여관찰의 경우에도 연구자가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평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관찰의 대상이 되는 장면은 꾸며지거나 숨겨진 현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접촉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되도록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접촉의 빈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점심식사를 같이 하거나 차를 같이 마시면서 자유롭게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는 기억해 두었다가 빠른 시간 내에 노트로 옮겨 적는 형식을 취하였다.

두 번째 한계는 자료수집 기간이 짧아 학교의 활동들을 충분히 관찰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면담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지만 학교 운영의 정신을 심도 깊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 점은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 번째 한계는 면담의 대담자들이 학교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담자 선정을 대상 학교의 교목이나 핵심교사에게 의뢰하였다. 연령, 성별, 교직경력, 신앙(의 열심)여부 등에서 다양한 구성으로 대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

를 염려하여 일방적인 대담자가 선정된 측면이 있다. 접근성이 용이한 대상 학교의 경우는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과의 비공식 면담을 통해 이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멀리 위치한 학교의 경우는 한계를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IV. 연구 결과

1. A 고등학교

(1) 학교교육의 목표: “기독교적 인격 함양”

대도시에 위치한 A학교의 교훈은 “기독교적 인격”이다. 한국의 여느 학교와 비슷하게 학교건물의 중앙 현관과 대부분 교실의 한쪽에 교훈이 적힌 액자 혹은 종이가 붙어 있다. 연구자들이 면담한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교육의 목표가 기독교적 인격의 함양이라고 답을 했다. 학교의 교훈이 단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기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다양한 형태로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적 인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기독교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성경말씀대로 살아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가 되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것” 등과 같이 다양하게 답을 했다. 학교의 목표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은 넓은 범주에서는 유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면담한 한 학생은 학교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고도 답했다. 교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저 하나님을 믿

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기독교적 인격함양이라는 교육목표가 어떻게 실제 학교교육에 구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답한 것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예배와 종교(성경)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고, 일부 교사와 학생들은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지 신앙 이야기를 하는 점도 들었다. 그리고 다수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만남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면이 전달된다고 응답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니다.”라고 말한 3학년 한 학생의 응답이 다수 교사들의 말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교감, 교목, 부장 교사들은 교사채용과 같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학교의 교육목표와 부합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이나 수업의 내용 및 방법에서 기독교적 인격 함양이라는 교육목표가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학과 수업에서는 기독교교육이라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한 선생님의 발언이 많은 교사들의 고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목표와 대학입시: “두 마리 토끼”

기독교적 인격 함양과 대학입시에 대한 준비는 A학교가 추구하는 두 가지 교육목표이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라고 말한 1학년 학생의 말이나 “공부를 기본으로 하고 기독교적인 것을 추가하는 것”을 기독교학교의 본질로 이해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의 발언은 위의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기독교학교가 진학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가능합니다.”

“기독교적 인격함양을 이루는 것은 입시에 대한 성공적인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

“아침마다 큐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 교사들의 이런 말들은 교감의 다음과 같은 말로 잘 요약되고 있다.

“기독교학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수 대담자가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적 인격함양과 입시 준비는 동시에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직 경력이 10년이 넘는 중견 교사는 확신 있게 말하였다. 면담한 한 교목도 앞의 교사와 비슷한 내용의 말을 했다. “우리 학교는 입시교육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생활 전체를 통하여 기독교적인 것과 입시가 함께 추구되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오랜 역사 가운데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어 왔어요.”

이들의 말처럼 실제 A학교에서는 이 둘이 큰 긴장관계를 갖지 않고 병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입시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쉬는 시간 교실 밖에서 만나게 되는 학생들의 표정도 다소 밝고 활기찬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물론 수업시간 조는 학생들이 여럿 보이고 교사의 일방적 강의에 반응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고등학교 교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의 병존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학교 전체적으로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더 강조하고 각 반에서는 경우에 따라 입시를 더 강조합니다.” “수업 시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대입 수능에서 등급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신앙적인 도움도 많이 주십니다.”

연구자들이 관찰한 한 3학년 수업은 학생들의 이러한 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학생의 기도로 시작한 과학 수업에서 교사는 밝은 얼굴과 친절한 태도로 시종일관 학생들을 대했다. 조는 학생들을 부드럽게 깨우기도 하고 수업 중 성찬식의 포도주와 화학의 상관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교과내용 중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었다.

2. B고등학교

(1) 학교교육의 목표: “실력 있는 신앙인”

연구자들이 면담한 거의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은 B학교 교육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실력 있는 신앙인’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력 있는 신앙인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교감은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며,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력 있는 신앙인이란 실력을 키워서 남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학생들도 유사한 대답을 하였다. 2학년 한 학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자라나서, 더 영향력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3학년 학생은 “신앙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서 세계로 뻗어나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답변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의 말들은 학교의 공식적인 교훈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와 같은 맥락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의 교육목표가 분명하고 학교의 비전이 학교 구성원들 가운데 공유되고 있는 이유는 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한 이사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학교장의 카리스마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사장은 학교설립

초기 교사 채용에서나 교사 훈련에서 높은 수준의 신앙과 헌신을 요구했다. 교사제자반 훈련을 직접 인도하며 학교의 철학을 만들어 나갔다고 한다. 지금은 이사장이 인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교사 성경공부, 교사 기도회 등이 학교의 교육목표를 확산시키며 공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학교의 목표가 이사장, 교장 등의 수준에서 결정되어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의 리더십에 불만을 토로하는 교사도 있었다. “학교장의 철학에 따라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생각이 사실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교장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죠.”

B학교는 실력 있는 신앙인 양성을 위해 신앙과 실력 모두를 강조한다. 먼저 학생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학교는 다양한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다. 학교 채플, 아침 경건회, 선교부 활동, 자발적 기도모임 등은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매주 1회 열리는 채플은 매우 뜨거운 열기 가운데 이루어진다. 설교와 찬양 외에 반별 특송도 하고, 성경 1독을 한 학생에게 인증서와 선물을 주고,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도 갖는다. 안 믿는 아이들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학생은 “처음엔 거부감도 들었는데, 그게 학생들 간의 단결심도 좋게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채플에 참석한 한 연구자는 채플 중에서 하나됨이 느껴지고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아침마다 선교부장 학생의 인도로 학급 경건회가 드려진다. 교감은 아침 경건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침 경건회는 학생들 스스로가 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학교교육에 있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B학교에는 이 외에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모임들이 있다. 매주 금요일 저녁 6:20마다 갖는 620 기도회, 매일 밤 10시에 갖는 10시 기도회에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모여 기도와 찬양을 열심히 한다. 620 기도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한 교사는 학생 기도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하는 어떤 수업보다도 바로 이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장 중

요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실력에 대한 강조 역시 중요한 측면이다. 먼저 학생 선발에서 실력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 애를 쓴다. 중학교의 내신 성적과 선발시험을 거쳐 학교에 들어오게 된다. 지역에서 명문학교로 이름난 덕에 경쟁률이 높아 중학교 때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만이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교사들 역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학생들은 대부분 교사들의 이런 노력들에 대해 인정한다. “선생님들의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세요...실력 있는 신앙인을 길러내고자 하는 열정이 나타나거든요” 수업 시간 교실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면학 열기 역시 사뭇 진지했다. 연구자들이 관찰한 수업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조는 학생이나 딴 짓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학과수업이 끝나는 6시부터 계속하여 자율학습의 형태로 밤 10시까지 공부를 시키는 것도 실력을 중시하는 학교의 모습의 한 단면이다.

(2) 교육목표와 대학입시: “동전의 양면”

B학교가 추구하는 학교교육의 목표와 대학입시 준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큰 갈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학교가 표방하는 교육 목표인 ‘실력 있는 신앙인’이란 개념에는 대학입시에서의 성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교육과 입시준비교육 사이에 긴장을 느낄 소지가 적은 것이다. 면담한 교사와 행정가들 역시 두 가지 교육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었다. 한 교사의 말이다.

“우리 목사님[이사장]의 생각은 입시와 신앙을 갖춘 실력 있는 신앙인을 사실 원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 고민도 좀 있었어요. 근데 워낙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아주 굳은 비전을 갖고 계시

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두 가지 다를 추구하려고 노력해요.”

교감은 아주 확신 있게 신앙교육과 입시준비교육의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을 강조했다.

“동전의 양면이니까 그것을 분리할 수 없죠. 둘 중 어느 것 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교육과 입시준비교육의 공존이라는 교직원들의 생각들은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다. 먼저,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에서는 대학입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교과서 중심의 내용으로 교사의 강의 위주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 “입시준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2학년 때까지 전체 진도를 마치는 과목도 있고, 문제 풀이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업 시간에서 입시에 대한 언급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기도회와 학급 경건회 그리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나 학생 상호간의 관계와 같은 학교의 분위기에서 신앙을 강조하는 모습이 여실히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한 학교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교사의 말이다. “친구들끼리 서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좋대요. 그걸 평생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웠을 때, 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지내들끼리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해 주고 이랬던 추억들이 남아서 졸업하고 계속해서 고등학교를 잊지 못하고 또 오고, 후배들 챙기러 또 오고 그래요.” 면담한 학부모 역시 신앙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모습에 흐뭇해하고 있었다. “우리 딸이 말하기를 일반 학교에서는 다른 애들 가방 뒤지고, 누가 수업 시간에 자거나 노트필기 안 해도 절대 안 빌려준대요. 그런데 여기에 오니깐 누가 자면 서로 깨운다는 거예요. 나가서 세수하고 오라고, 서로 격려해 가면서 공부를 하더군요. 아이들의 마음이 밖의 아이들과 다르게 순수해요.”

입시교육과 신앙교육의 공존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실의 학급 게시판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학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성경말씀이 적혀 있다. 2008년 고입진학을 위한 학교 설명회를 위한 자료집 역시 이러한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 자료집 표지에는 학교의 교훈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를 크게 적어 두었다. 자료집의 내용 중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B학교의 대학진학 현황이다. 연도별로 각 주요 대학의 합격자 수가 나와 있다.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대학진학률을 학교의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앙교육과 입시교육의 공존이 학교의 주도적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그 공존에 대한 인식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여주었다. 면담한 2학년 학생은 학교가 입시준비보다는 신앙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다고 답했다. 620 기도회나 10시 기도회에 학생들이 자주 가는 것을 선생님들이 그냥 두는 것은 신앙교육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1학년 학생 한 명은 반대 의견을 나타내었다. “저희학교 목표가 실력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한 압박을 심하게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엔 신앙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실력으로 끝나죠.” 한 교사 역시 학교 근무 초기에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 제가 생각한 기독교학교의 모습은 대안학교에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여기에 와서 보니 이 학교 역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해서 갈등이 있었죠.”

3. C고등학교

(1) 학교육의 목표: “전인적 인간 교육”

C학교가 표방하는 교육목표는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C학교가 대안학교로 설립되면서 내세운 교육철학이 “C교육”이라는 전인적인 인간 교육이었고, 교

육과정 역시 이 교육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마음, 몸, 지식의 힘을 기르고, 자기관리와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다섯 가지 영역에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전인교육을 통해 ‘기독교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C학교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교육목표이다. 학교가 표방하는 교육목표는 실제 교사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C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이라든지, “C교육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인재를 양성”하는 것 등으로 표현했다. 학생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나타내었다. “C교육을 통해 전인적 인간을 만드는 것” “전인적 인간,”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 학교 교장 역시 학교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독교교육과 C교육을 통해 세계를 품은 전인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전인교육과 기독교교육이 어떤 관계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어떤 교사는 신앙교육을 전인교육의 바탕으로 이해하여 신앙교육과 전인교육을 통합적 관점으로 보고 있고, 다른 교사는 신앙교육과 전인교육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여 그 둘을 병렬적인 관계로 보고 있고, 또 다른 교사는 전인교육을 수단으로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C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목표는 학교교육에 다양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다섯 가지 영역의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인간관계’ ‘자기관리’ 과목이 별도로 있고,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3분 묵상, 몸과 마음을 동시에 키우는 노작활동 등이 있었다. 개인의 재능을 발견하여 향상시킬 목적으로 방과 후 달란트 수업³⁾이 진행되고 있

3) 달란트 수업이란 학생들의 재능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업이다. 이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의 개성과 특기를 살리는 평가를 지향하여 창의력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방침은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식위주의 교

다.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전체 예배, 종교(성경)수업이 공식적으로 있고, 밤 기도회, 큐티 모임, 제자반 공부 등이 학생들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교사는 “학교생활 전체가 작은 교회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다. 연구자들이 관찰한 밤 기도회는 방과 후 공부를 마친 밤 9시에 40명 가량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50분 가량 지속된 기도회에서는 찬양을 하고 기도제목을 나눈 뒤 학생 자신들과 학교를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매우 열심히 하였다. 학생들의 문화 속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강하게 배어 있다고 진술한 한 교사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잘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이다. 학생 10명에 교사 1명이 한 팀을 이룬다. 매일 밤 10시까지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친밀도가 아주 높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들을 좋아한다. “여기 있는 학생 모두가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 한 분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교사와 학생간의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터놓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많아요... 선생님 앞에 와서 영영 울기도 하고.”

교사들에게 학교교육의 철학이 공유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교사교육을 중요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신입교사는 집중적으로 C교육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기존의 교사들도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최근 들어 각 교과교육에서도 전인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사들은 함께 C교육에 의한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다.

(2) 교육목표와 대학입시: “전인교육과 입시교육 사이에서”

C학교에서 학교의 교육목표인 전인교육과 입시준비 교육은 매우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면담을 한 많은 교사들은 전인교육과 입시교육 사이에서

육을 지양하고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현재 C학교에서의 달란트 수업은 교과목(국, 영, 수, 사, 과)중심의 교과 달란트와 예능 활동중심의 달란트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 가지 영역의 전인교육을 균형 있게 교육해야 하지만 대학입시를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상(전인교육)을 가지고 그 이상에 맞게끔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입시)에서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그것(교육목표)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다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려야 하는 그런 현상 같아요.”

다수 교사들이 전인교육과 입시교육 사이에서 긴장을 느끼는 반면, 일부 교사들은 그 둘이 구분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즉, C교육이라는 전인교육이 결국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대학입시에도 좋은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C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입시에 대한 지도까지 다 포한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하든지, 체력이 약하든지, 자기관리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교육을 제대로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거든요.”

전인교육과 입시교육의 관계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학교 전통의 계승이다. 먼저, 학교 초창기부터 근무한 교사들은 전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이후에 학교에 들어온 교사들은 전인교육과 입시준비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C학교 교사들 가운데 학교 초창기부터 근무한 교사들은 소수만이 남아 있었다. 근무연수가 짧은 것이 대안학교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 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학교 초창기에 있었던 학교의 목표와 비전이 교사들이 새롭게 충원되면서 제대로 계승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그리고 학교 리더십의 변화가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현 교장은 2006년 2학기에 부임하였는데, 부임 후 학교

에 여러 가지 변화가 왔다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진술했다. “수업도 많이 바뀌고, 달란트 학습도, 그야말로 재능을 키워 주는 달란트라기보다는 교과 위주의 달란트가 많이 생겼고요.” “예전엔 전인교육에 많이 치중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아무래도 지식에, 대입 쪽에 관심을 두고 C교육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기숙사 개방도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방과 후 달란트 학습 시간에 문을 닫아 버려요.” 2, 3학년 학생들은 학교의 이런 변화를 좀 더 민감하게 느끼며 다소 불만을 표시하였다. 최근 들어 외형적으로 달라진 교육활동들로는 노작이 없어지고, 3분 묵상의 횟수도 줄어들고, 과거 시사상식, 하천 연구, 웰빙 연구 등 다양하던 방과 후 달란트 학습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심의 학과 공부로 변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전인교육에서 입시준비교육으로 강조점이 변해가는 현 상황에 불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상을 환영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학교의 변화는 학교 입학생들의 학업 수준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올해 1학년 학생의 경우 지금까지의 지원율 가운데 가장 높은 6:1의 지원율을 보였고, 입학생들의 학업 성적도 예년에 비해 높다고 한다.

C학교는 전인교육을 토대로 한 기독교교육과 입시준비교육의 관계성 설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장은 기독교학교로서의 건학이념대로 기독교교육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하였다. “우리는 기독교교육에 추후도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뿐 아니라 3학년도 똑같이 기독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은 상반되었다. “지금 교장 선생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세요. 막 격려해 주시는 건 아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는 애들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시험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이전 시험보다 1등이라도 올려야 된다.” 10년 역사를 맞이하고 있는 C학교는 전인교육, 기독교교육, 대학입시와의 관계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었다.

V. 논의

앞에서 세 학교들이 표방하는 교육목표와 그 학교들이 실제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을 심층 면담과 관찰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학교들이 추구하는 학교교육의 목표가 대학입시 준비와 어떻게 공존 혹은 갈등하고 있는지도 묘사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의 두 가지 연구 질문 1)기독교학교의 교육목표, 2)교육목표와 대학입시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기독교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해 연구 대상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신앙(인격) 교육과 실력배양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앙과 실력이 각 학교에서 어떻게 이해되며 추구하고 있는지,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이들이 기독교학교의 교육목표로서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해서 기독교학교의 교육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대학입시가 어떤 장애가 되는지, 대학입시가 기독교학교교육에서 차지해야 하는 적절한 위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과 실력

연구 결과에서 본 것처럼 세 개의 연구대상 학교들은 학교교육의 목표로서 신앙(인격) 교육과 실력배양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신앙과 실력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 사람과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시각들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모형으로 유형화시켜 볼 수 있다. 먼저 신앙과 실력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분리적 관점’이 있다. 이 관점 하에는 신앙을 실력보다 우선시하는 ‘신앙 우선 모형,’ 실력을 신앙보다

우선시하는 ‘실력 우선 모형,’ 신앙과 실력을 대등하게 중시하는 ‘대등 모형’ 등이 있다. 그리고 신앙과 실력은 분리될 수 없으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연결적 관점’이 있다. 이 관점 하에서는 신앙 속에 실력이 포함되어 있기에 신앙을 열심히 추구하면 실력은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선(先)신앙 후(後)실력 모형’, 신앙과 실력이 혼합되어 있지만 실제 목적인 실력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강조하는 ‘주(主)실력 종(從)신앙 모형’ 등이 있다.

A학교에서 강조된 “두 마리 토끼” 비유는 대표적인 ‘대등 모형’을 나타낸다. 신앙과 실력은 별개의 것이지만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학교의 본분이라 믿는다. 그래서 일반 교과 수업에서는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예배, 종교수업, 선교부 활동 등을 통해서도 신앙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B학교에서 사용된 “동전의 양면” 비유는 ‘선 신앙 후 실력 모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B학교의 행정가들과 다수 교사들은 실력이 포함된 신앙을 주장한다. 그래서 신앙을 열심히 추구한다는 것은 좋은 실력을 동반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B학교 교목의 말은 이를 뒷받침 한다. “신앙이란 영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 묻어 있는 것이며, 학생생활의 대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특히 고등학생은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대학입시를 잘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다.”

C학교에서 발견되는 점은 연결적 관점에서 분리적 관점으로 전이되는 모습이다. 학교 초기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전인교육을 추구할 때 지력(知力)은 신앙교육 속에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 지식 분야를 중시함으로써 지력을 나타내는 실력이 신앙과 분리되는 현상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A학교에서는 ‘대등모형’이, B학교에서는 ‘선 신앙 후 실력 모형’이 두드러지고, C학교에서는 관점의 전이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각 학교의 대표적인 분위기를 지적한 것일 뿐 사실 세 학교 모두에서 다섯 가지 모형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 학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있다. 그것은 세속화된 기독교학교에서 종종 나타나는 ‘실력우선 모형’이나 성공주의적 기복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주 실력 중 신앙 모형’이 최소한 세 학교의 주된 모습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독교학교들에서 신앙교육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는 실력에 중점을 둔다고 많은 이들이 비판을 하는 것과는 대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을 열심히 추구하는 듯 보이나 실제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인 경우를 종종 목도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이들 학교들은 어느 정도 건전한 기독교학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점은 그 학교들에서 말하는 신앙과 실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A학교와 B학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의미는 유사하다. A학교에서는 기독교적 인격을 강조하며, 기독교적 인격이란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긴 하지만, 신앙으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B학교 역시 신앙에 대해 말할 때 신앙의 포괄적인 면을 의미한다. 단지 신앙과 관계해서 사람들을 이끌 리더, 남에게 베풀 것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리더 등을 이야기함으로써 신앙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C학교에서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재능) 개발의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재능 개발을 통한 전인적 성장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를 품은”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한다. 개인에게 주어진 다양한 재능 개발이라는 측면 외에는 다른 두 학교와 특별히 차이 나는 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기독교학교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때 학교 구성원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제각기 다를 수가 있고, 더구나 신앙을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해석할 위험을 갖게 되기도 한다. 세 학교에서도 ‘실력 우선 모형’이나 ‘주 실력 중 신앙 모형’의 모습이 조금씩 발견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들 세 학교에서 신앙이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신앙교육의 초점이 구체적이지 못한 현상은 대개 신앙교육이 주로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학생 상호간의 관계,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회와 찬양집회 등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문화, 기도와 찬양 등은 학생들에게 신앙을 내면화시키고, 신앙적 열정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면, 신앙의 내용을 숙고하고 비판적으로 형성해가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정서적인 면이나 의지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지적인 측면에서도 조화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함께 형식적 교육과정에서도 신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살림을 위한 책임 있는 제자도”를 교육목표로 하는 미국 미시간 주의 일부 기독교학교들은 그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Stronks & Blomberg, 1993), “더불어 사는 평민”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기독교학교인 풀무학교 역시 교육과정과 학교행정, 학교문화 등을 학교의 교육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홍순명, 1998).

다음으로 기독교학교에서 말하는 실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A학교와 B학교에서 실력을 말할 때 가장 빈번하게 의미하는 바는 학업 성적과 대학입시에서의 성공이다. 실력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높은 성적을 얻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B학교의 경우 대학입시가 끝나고 나면 일류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명단을 큰 플랜카드에 써서 학교 앞에 붙이는 일을 한다. 학교를 소개하는 문서에는 언제나 대학진학률을 제일 먼저 넣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와 다른 학교들과의 차이점도 발견되기도 한다. 그것은 일반학교에서는 실력이 단순히 높은 학업 성취도, 입시에서의 성공만을 의미한다면, A학

교, B학교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남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함께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B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실력을 키워 남 주자”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이들 두 개 학교에서는 남을 돕기 위하여 대학입시에 성공하여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진정한 실력이라 보고 있다. B학교는 A학교에 비해 이러한 의식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작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C학교의 경우는 실력을 보는 관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C학교의 설립자는 성적은 높지만 실력이 없는 교육현실을 비판했다. 역사 성적은 높지만 역사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길러지고, 체육 성적은 높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길러지는 현실에서 모순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실력이란 높은 시험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등 인간의 전인격적인 면을 골고루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 주장한다. 실력에 대한 이런 정신은 지금도 학교의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은 것이나 달란트 학습, 인간관계 수업 등 전인적인 면에서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C학교는 다섯 가지 영역 가운데 대학입시와 직접 관련 있는 지력을 점차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력 향상을 대학입시 준비로 축소시키는 모습도 보인다.

실력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A, B학교가 기독교적 교육목표를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핵심인 교실 수업에서 일반 학교들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실력을 기독교적으로 새롭게 재정의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풀무학교에서 보여주는 실력에 대한 이해의 방식은 많은 기독교학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홍순명, 1998). 풀무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지식교육, 기능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실력 있는 인간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셋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

다는 것이다. 일반 교과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풀무학교 전 교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국어는 주로 읽기, 쓰기를 가르치지만 그 수단을 통해서 대화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고, 수학을 통해 합리적 사고를, 영어를 통해 인류가 하나라는 생각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과학을 통해서 자연법칙에 대한 외경을, 경제과목에서는 ‘마지막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공평한 경제의 적용을, 세계 역사를 통해 역사 속의 도덕적 의지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체육을 통해 공정한 경기정신을 배울 수 있고 음악을 통해 조화로움을 익힐 수 있습니다.”(홍순명, 1998, p.147)

풀무학교에서는 실력이 시험성적이나 대학입시에서의 성공과 결코 등가적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쓴다고 한다. 물론 풀무학교가 연구대상 학교들과는 달리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학입시부터 상대적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과 실력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실한 의지가 없는 한 여건에 관계없이 학교가 입시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대학입시와 기독교교육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관문이다. 그러므로 학교가 입시를 준비시키는 교육을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입시가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을 종속화시켜 학교교육을 비정상화하는 오늘날의 교육현실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 교육에서 입시의 적정한 자리를 찾는 것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대학입시는 연구대상 학교들에게도 중요한 교육목표가 되고 있다. 물론 대

학입시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신앙이나 실력 등과 같은 기독교교육의 측면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학교들마다 교육목표로서의 대학입시를 이야기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B학교에서는 입시에 대한 목표의식이 강한 반면 C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차이의 원인에는 학교 내적 요인도 존재하지만, B학교가 경쟁이 치열한 비평준화지역에 위치하는 반면 C학교는 대안학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학교 외적 요인이 작용하는 탓도 있을 것이다.

대학입시가 학교의 교육목표로 자리잡을 때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즉,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가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자리잡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 기독교교육은 왜곡되기 시작한다. 기독교교육은 연구대상 학교들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공부해서 남주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공부를 통해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 남을 돕는 것은 매우 선한 일이고, 기독교교육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교육의 과정을 무시한 채 교육의 결과만을 생각하게 하는 위험을 낳기도 한다.

기독교학교의 교육목표가 ‘기독교적 인격으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것’(A학교)일 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B학교)일 수도, ‘기독교 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C학교)일 수도 있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것들은 훌륭한 기독교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학교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질문이다. 무엇보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핵심인 교실 수업이 학교교육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A, B학교에서는 교사의 학생들을 대하는 친절한 태도, 학생들 간에 서로를 위하는 문화 등에서 일반 학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C학교의 경우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전인적 교육

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연구대상 학교들이 분명 기독교교육을 일부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학교의 기독교적 교육목표보다는 입시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독교 교육은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을 배움에 있어 기독교적 세계관에 토대를 할 뿐 아니라 실천 지향적 배움⁴⁾이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Wolterstorff, 1980). 그러므로 각 교과목에서 기독교적 교육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내용과 방식을 새롭게 재조명하여 개선하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B학교의 과학 수업과 국어 수업에서 그러한 모습을 조금 볼 수 있다. 과학 수업시간에 교사는 창조론적 입장에서 교과내용을 설명할 뿐 아니라, 수업의 방법에서도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함께 지식을 탐구하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 국어 교사 역시 공부하는 지문 안에서 발견되는 세계관적 요소를 이야기하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C학교에서는 기독교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작업들이 비록 이들 학교에서 주류를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기독교교육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입시에서는 기독교교육에서 중요시 여기는 지식을 보는 관점이 나 실천지향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즉, 대학입시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점이 기독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입시 준비가 학교의 목표가 될 때 필연적으로 기독교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입시준비가 기독교학교의 일차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입시는 단지 학생들이 거쳐야 되는 중요한 한 과정일 뿐이다.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동안 학습한 지식을 평가하는 한 과정인 것이다. 그것도 학생이 학습한 지식 중 일부만을 평가하

4) 실천지향적 배움을 윌터스토프(1980)는 경향성 학습(tendency learning)이라 표현했다. 경향성 학습이란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하는 경향성을 학생들에게 기르게 하는 학습을 일컫는다.

는 한계가 많은 평가도구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들은 종종 입시를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게 만드는 기준으로 삼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

대학입시의 성적이 기독교학교 교육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에서는 입시의 적절한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입시를 넘어서 기독교적 전인 교육을 시키는 사명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수업의 내용과 방법, 학교의 행정 시스템, 학교의 문화 등에서 성경적 관점에서의 전인교육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그리고 기독교학교교육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대학입시가 간과하는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능력, 지식에 대한 세계관, 지식의 실천성 등을 평가하는 나름의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독교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무엇인지, 그 교육목표가 대학입시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 개의 기독교 고등학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각 학교에서 교육목표의 추구하고 입시준비교육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세 학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건전한 기독교교육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았다. 즉, 이들 학교에서는 신앙교육과 실력을 키우는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일부 기독교학교에서 신앙보다 실력을 우선시 한다든지 신앙을 실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 종종 비판을 받는 경우와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들이 갖는 한계점 역시 여실히 존재함을 살펴보았다. 학교에서 추구하는 신앙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개인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이 있고, 실력을 시험점수나 대학입시에서의

성공 등으로 지나치게 축소시켜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학과수업 외의 활동에서는 신앙교육에 열심인 반면 학과수업에서는 일반학교에서의 수업과 별반 차이가 없이 입시준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독교교육의 핵심을 성경적 관점에서의 지식의 학습과 지식의 실천적 경향성의 학습이라 볼 때 연구 대상 학교들은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라고 하는 현실적인 요구가 강하게 영향을 끼치므로 기독교학교에서도 입시에 대한 준비가 학교교육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해 버리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기독교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갖는 기독교교육에 대한 관점도 이러한 기독교학교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신앙교육과 지식교육에 대한 분리적 관점이나 지식교육을 입시교육으로 보는 협소한 관점이 기독교학교들의 진정한 기독교교육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기독교학교교육에 대한 실천과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기독교교육이 종교교육에 제한되는 것을 넘어 모든 교과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과 외 교육활동에서도 실시되어야 함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기독교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교육인지에 대한 논의는 참으로 부족하다. 종종 언급되는 기독교세계관에 의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경적 지식관에 입각한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요청된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실력, 시험(평가) 등의 개념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입시에서의 결과가 학교에 대한 평가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기독교학교들도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나아가 입시 외에 기독교학교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세 개 학교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이들 학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그 연구 결과가 나머지 기독교학교들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표집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가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기독교학교에서의 교육과 입시와의 관계가 보다 온전하게 규명되리라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강무섭 외 (1990), 『입시 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I),』 한국교육개발원
- 강무섭 외 (1992a), 『입시 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II),』 한국교육개발원
- 강무섭 외 (1992b), 『입시 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III),』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택 (2007), “기독교대안학교의 향후과제” 한국기독교대안학교의 현실과 과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주최 세미나 자료집, 2007.03.
- 강영혜 외 (2005), 『고교평준화정책의 적합성 연구 (III) -한국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5-9.
- 고용수 (2004),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재확립,” 『기독교학교교육,』 5, 28-51.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07), 『기독교대안학교 가이드,』 서울: 예영.
- 김선요 (2004), “기독교대안학교교육의 현황과 비전” 『교육교회,』 10, 4-9.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987), 『중등교육의 현실과 전인교육,』 서울: 신정문화사.
- 박상진 (2007),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전략과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과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주최 심포지움 자료집, 2007.02.
- 박봉목 (2004), “한국기독교학교교육의 진수,” 『기독교학교교육,』 5, 64-77.
- 손원영 (2007),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의 진단과 평가, 그리고 새 방향,” 『기독교

『교학교육』 6, 48-74.

- 신기영 (2007),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독교학교의 내적인 개선방안,” 한국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과제, 기독교학교교육연구회 주최 심포지움 자료집, 2007.02.
- 양금희 (2000), “기독교학교, 학교교육의 대안인가?,” 『교육목회』 12, 39-46.
- 양승실 (2003), 『대학입학제도의 운영 실상과 영향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3-4.
- 이영호 (2002),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의 청소년 학습문화,” 『교육사회학연구』, 12(1), 135-171.
- 정범모 (1993),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서울: 나남.
- 정희영·정희정 (2005), “한국 기독교학교 교육의 현황과 그 대안,” 『신앙과 학문』 10(2), 169-211.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존 볼트 (2006), 『이야기가 있는 학교』, 서울: IVP.
- 홍순명 (1998),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풀무학교 이야기』,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Lincoln &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s Oaks, CA: Sage Publications
- Stake, R. E. (2000), "Case Studies" (pp.435-454). In Yvonna Lincoln and Norman Denzi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s Oaks, CA: Sage Publications.
- Stronks, G. & Blomberg, D. (1993), *A Vision with a Task*, Grand Rapids, MI: Baker
- Wolterstorff, N. (1980), *Educating for Responsible Action*, Grand Rapids, MI: CSI Publications
- Yin, R.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 Thousands Oaks, CA: Sage Publications

Abstract

**Educational Aims and College Entrance Exam at
Christian Schools**

Young Taek Kang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Jong Chul Lee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college entrance exam influences schooling at Christian schools in Korea. We conducted qualitative case study on three Christian high schools, through which we have discussed interrelation between the schools' educational aims and education for the exam. We found that these schools rarely emphasize academic achievements over faith nor consider faith as a vehicle to acquire higher academic achievements. However, we found many limitations within the schools. The faith that the schools pursue is not specifically defined, so individuals at the schools tend to understand it in their own ways. They also understand academic achievements in a narrow sense, such as high test scores or success in college entrance exams. Consequently, while the schools try to teach faith at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y stress education for college entrance exam at classes. In the conclusion,

we proposed three suggestions on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of Christian schooling.

Key Words: Christian school, College entrance exam,
Christian education, Educational aim,
Qualitative case study